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종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 젊은이여! 믿음으로 일어나라

- 성령이여 새롭게 하소서 - 6월 29일 (금) - 30일(토)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부흥을 위한 젊은이 전도집회가 6월 29일(금) - 30일(토) 까지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29일은 오후 7시부터, 30일은 오후 5시부터 열리는 이번 행사는 찬양과 성극과 말씀과 친교가 있는 풍성한 영적축제가 될 것이다. 400명 초청을 목표로 이미 열서와 전화와 심방이 진행중이다. 찬양은 필그림, 성극은

성극부, 말씀은 김성봉 목사(안양대 신대원장, 나누며 섬기는 교회 말씀사역자)가 담당한다. 2001 전도집회의 부흥의 물결은 7월 중순의 대학부, 청년부 연합수련회로 연결되어 이종운 목사(안양대 신대원장)와 함께 로마서 12장으로 풍성한 말씀찬치를 가지게 된다.

### 홍해작전 - 마지막 고비를 넘어 승리의 고지를 향하여

우리 교회의 홍해작전 20일간의 진군 일정 중 12일의 여정을 마쳐 절반을 넘었다. 이제 우리의 눈에는 앞서 가시는 주님께서 향하시는 고지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승리뿐이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생애를 공부하며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만 바라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쫓아왔다. 육신은 피곤하고 지쳐 있으나 나날이 새로이 먹여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다. 이 시점에서 마지막 남은 장애물을 넘어 주님이 승리의 기를 꽃으시는 그 곳, 사단

이 멸망하는 장소에 낙오하여 처지는 이 없이 다함께 손을 잡고 다다르자. 지금까지의 홍해작전에 참가한 성도의 누계는 5557명으로 매일 약 556명의 성도가 승리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나만이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는데 있지 않다 낙오하여 상처받은 이를 위로하고 힘을 북돋우어 승리의 자리에 함께 가 주님의 칭찬을 함께 받는 것이다. 다시 한번 기도한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의 고지에 이르도록 하자.

### 사랑의 헌혈행사를 갖는다.

7월 1일 (주) 10시 30분 부터

우리교회는 주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오는 7월1일 주일 10시30분부터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한다. 피는 생명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피는 우리의 몸의 각 곳을 다니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귀중한 피가 병으로 모자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헌혈이다.

인체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매일 50ml의 새로운 피를 만들어내고 같은 분량의 묵은 피를 처리하고 있다.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10%의 여유분의 피를 가지고 있어서 320ml~500ml 정도의 헌혈은 인체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 김치세미나9박10일을 돌아보며



①



③ 9차 김치세미나  
싸인 보드에 서  
명을 하시며



⑥⑦강의와 기도 시간 - 너무나도 진지한 자세로 임하  
신 목사님들 - 암흑의 아프리카가 구원을 받도록



②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목사님  
- 예수님의 겹세마네 기도를 기억하며

④

⑤ 김치 세미나 동안 통역으로  
수고하신 문영숙 선교사



① ② 지난주 저녁 찬양예배 시간의 특별 순서  
- 각 국목사님들의 소개와 찬양이 낮설었지만 그 안에 하  
나님 사랑이 있었다.

이사야서 강해

#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중운 목사

(이사야 45:20 - 25)

본문에는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구원의 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본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 오라는 초청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 1.우상숭배자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우상을 떠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나타나지도 않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도울 수 없는 신들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무지한 자들입니다. 자기만도 못한 피조물에게 기도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줄 하나님이 물질이 있다는 생각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을 물질 속에서 찾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손으로 만든 우상단지에서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연에 지배를 받으므로 그들은 과학의 삶도, 문화의 삶도 살지 못합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20절).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에서 해방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선지자는 초청합니다. 자유를 얻은 이들에게 선지자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20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거저된 피난처를 세우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므로 우상을 섬기는 일은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무에 도금을 하고 장식을 해도 나무는 여전히 나무에 불과 합니다. 그 우상은 사람을 능히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말을 듣지도 못하고 돕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우상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 수고하고 고행하는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와 아니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21절). 우상을 섬기는 일은 홀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적수를 세우는 일이므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참 하나님은 홀로 예언하십니다(21절). 하나님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바벨론이 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예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며 하나님에게는 모든 시간이 현재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홀로 윤리성을 띠시고 공의를 행하십니다(21절).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잣대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공의롭고 공평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분에게만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 2.하나님을 성실하게 숭배하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우상숭배자들은 이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는 초청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아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22절). 이 말씀은 스페셜 목사님을 회개시킨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에게는 구원이 있게 됩니다.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청년 스페셜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심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 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23절).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변치 않는 것을 확고히 보여주시려고 맹세까지 하십니다. '공의로운 말'은 백성을 구원시킴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그 말씀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는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모든 왕들과 만민이 그리스도 예수께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 회복과 그가 심판대 앞에 서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성도에게 큰 위로며 격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 3.하나님의 의와 힘에 의지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24절). 그에게 노하는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좇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진실로 받기 원하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시 65:2).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땅에서 들리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강하시므로 우리는 그 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잠시는 세상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망을 할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으나 공평하고 공의롭지 않은 것은 아무 것도 행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25절). 신자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며 기도하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칭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 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합니다만 그보다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자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9차 김치세미나를 돌아보며

콩고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메후마 후마 볼리타 (CNCA 감독)

콩고 민주주의 공화국(이하 콩고로 칭함)은 1998년이래 계속적인 전쟁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내전은 국토를 정부군 진영과 반군에 의해 다스려지는 두 개의 나라로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각 진영은 이웃나라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이제 국제적 대리전인 "아프리카의 전쟁"의 양상을 띄게 되었습니다.

콩고 기독교 교계는 국제 기구들과 연대하여 화해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콩고인들은 외부 세력들이 철수하고 콩고인들 스스로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와중 속에서 기독교계는 콩고인들의 영혼 구제를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콩고전역의 2천여 교회들을 대표하는 CNCA의 감독으로 선출되어 막중한 책임을 기쁜 마음으로 지게 되었습니다. CNCA는 1931년 콩고에 첫 교회를 세운 뒤 줄곧 예수를 잃은 자들을 위한 구원의 비전을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간증, 대규모 캠페인, 미디어 선교 및 교육과 의료사업을 통한 복음증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훈련받은 목사님들이 교회의 50%에도 미치지 못하여 지도자 양성이 큰 과제이며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많은 지역이 있으며 특히 반군지역에서 우리의 사역은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외출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군 지배지역의 교회에게 새로운 복음증거의 기회를 주셨는데 회교배경의 모로코 지원병들이 UN으로부터 파견되어 이들에게 전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 30개월동안 250만명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질병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이 과부 고아들을 돕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 4:2에서 말한바와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콩고 국민들을 위해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기 우리 조국을 떠나 8일만에 한국에 도착하여 김치신학세미나에 기쁘게 참가하는 것은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평화가 우리 조국 콩고에 임하길 간절히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눈물의 기도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김치세미나에 참석하게 인도해주신 하나님과 초청해주신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콩고 교계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축도하시는 메후마 후마 볼리타 목사님

다락방 탐방

<호스트형 다락방은 뜨거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6시 30분, 4-4 다락방은 김치세미나에 참석하신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 다락방 예배를 드렸다. 평상시에는 모이기 힘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목사님들을 포함, 20명이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사도신경을 한국어와 불어로 교대로 고백하고, 카메룬에서 오신 바티보니크 목사님의 성경말씀 봉독으로 예배는 시작되었다. "너는 내것이라"는 민수기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공부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무개는 내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각자의 이름을 넣어 크게 암송하기도 하고, 나팔 불 때 한 사람의 이름도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거룩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며 목회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자제를 레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연관하여 의견을 나누기도 하는 귀한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내전 중인 콩고에서 오신 메후마 목사님(콩고 내 2000여 교회를 통괄하는 CNAC의 총회장)과 카메룬에서 배워와 교회(행 17장)를 3년 째 담임하시는 바니보나크 목사님의 자국 소개와 기도제목과 듣고 다락방장이 각 가정의 기도제목과 모은 후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은 모두가 하나되어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 화장실로 들어가 울며 회개하는 성도도 있었다.

피아니스트(최혜경 자매)와 오르가니스트(김예미 자매)의 연주에 맞춰 찬송을 부르는 시간, 성악가인 박경자 집사와 아프리카 목사님들의 특송도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다같이 일어나 손을 잡고 주기도송을 부른 후 메후마 목사님의 간절한 축도로 1부 모임을 마칠 때까지 4-4 다락방은 그야말로 작은 천국이었다.

반포동에서의 서울교회 시절, 주로 상업에 종사하는 인근 성도님들의 구심점이 될 다락방으로, 4-4 다락방을 신실하고, 다락방장으로는 김세재 집사를 파견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금요일 낮에 모이기 불가능하다는 것과 각 가정을 공개하여 다락방 예배를 드리는 것이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맞벌이 부부와 가족이 함께 상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주중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에 몇 가지 원칙이 세워졌다. 어려운 중에도 몇몇이라도 모일 수 있는 날은 토요일 저녁이며, 당분간 다락방장 댁에서 예배를 드리며 차로 이분들을 모시러 가고 부득이 한 곳은 가게에서 간단한 기도라도 함께 드리기로 한 것이 그것이다. 이상이 서울교회 내 호스트형 다락방이 생기게 된 배경이다.

4-4 다락방의 특징 중 하나는 식사교제의 시간이다. 대부분 직장이나 가게에서 바로 참석하는 관계로, 식사교제가 다락방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각 가정의 연락망, 기도제목, 아이들의 생일까지 기록한 기도카드를 서로 아이들의 근황도 묻고, 차주에 생일을 맞는 아이들에게 미리 생일 선물을 준비하거나 전화로 생일축하도 나누는 등 다락방 전체가 가족적인 분위기로 화기애애한 것도 이 식사교제에서 비롯된다. 여자 성도들이 식탁을 준비하는 시간이면, 남자분들은 찬송을 부르는데, 몇몇 여집사님들의 눈에는 이슬이 맺히곤 하는 것도 이 식사교제 시간이다. 그렇게도 핍박하고 세상 길로만 가던 남편이 본인이 사모하는 찬송을 힘껏 부르고 있으니,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밖에. 기도 중 울며 화장실로 갔던 한 성도는 자신이 술을 끊을 수 있도록 안수 기도해 줄 것을 두 목사님께 요청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먼 타국의 두 분 목사님과 4-4 다락방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나소정(편집부)

70인 전도대

이규정 목사님, 정윤돈 목사님을 비롯하여 8명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고정멤버가 되어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24일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준비된 영혼을 만나러 달려갔지요. 박선생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 분은 10년 동안 믿음생활 하다가 경남 통도사 절 밑으로 이사를 해 살다보니 절에 다니게 되었다고 하였고 그는 끝내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조성현 집사님과 조정옥 집사님은 속초에 사시는 이명환(67세)씨를 만났는데 식도가 막혀 진찰 중이었습니다. 이분은 주님의 사랑이 야기를 전하고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드렸더니 주님을 영접하며 기뻐하셨습니다.

이남복 권사님과 정윤돈 목사님은 벤치에서 교회 옆 삼성아파트에 사시는 분을 만났는데 이 분은 천주교를 믿다 불교로 옮겨 지금은 가정이 파탄직전에 있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분에게 이권사님은 처음 예수 믿을 때 핍박을 받은 간증을 하시며 두 손을 붙잡고 우시며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꼭 께실이 있을 것입니다.

전용순 권사님과 이규정 목사님은 소아 병동에서 김덕원 어린이(초등학교6년)과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는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학교 교사까지 하였는데 지금은 믿음생활을 못한다고 해서 사랑이야기를 전하고 기도해주었다니 주님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손으로 드리는 찬양  
에바다부 전인화 권사

날 부르는 저 손짓  
아니 들어  
알 수 있고  
아름다운 손끝 위엔  
주님 사랑 들어 있네  
어느 누구 기도한들  
이보다 진실할까?  
어느 누구 찬양한들  
이보다 은혜일까?

가슴속 마음 꺼내  
두 손위에 올려놓고  
반죽하며 조각하여  
주님모습 여기 있네  
그 누가 증거한들  
이보다 분명할까?  
듣지 못해 받지 못한  
생명의 복음을.

저들이 사마리아 땅 끝 아난가?

주름진 나의 손길  
저들의 귀가되어  
아름다운 이 복음  
전해주리라.

### 새로 왔어요 보고 또 보고 싶습니다.

김태삼 조속자 집사(11교구)



지난 5월 새가족 야외예배에서 가장 멋진 부부 모델로 선정된 부부 집사님을 만났다. 10년이란 긴 세월동안 자기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서울교회에 등록하게 된 두 분의 얼굴엔 기쁨과 행복이 배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긴 세월동안 교회를 정하지 못해 방황하다가 서울교회 새가족의 권유로 오시게 되셨지요?

김태삼: 10년 전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새가족인 이동권 박경자 집사님 부부의 인도로 예배 참석을 하여 이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출장을 가도 서울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신앙생활에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 202호에서 등록하실 때 받은 느낌은 어땠어요?

김태삼: 교회가 과장하지 않고 차분하고 진솔하게 맞아줘 평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당회장 사모님께서 한국적인 마리아처럼 말씀도 없이 나서지 않고 웃음으로 맞아주시던 것이 꼭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런 사모 덕에 오늘의 이 목사님이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 등록하신지 한달 조금 넘었는데 많은 분과 친해지셨더군요.

김태삼: 서울교회 교인들이 너무 좋아서 보고 또 보고 싶어요. 저도 새가족이지만 현재 전도대상을 정하고 함께 등산도 하면서 공을 들이고 있는데 열매 맺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내로서 남편이 서울교회에 나오신 후 어떤 변화를 겪고 있다고 느끼시지요?

조속자: 남편이 완전히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놀라운 변화임이 틀림없습니다.

언젠가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아내로 구하기 보다 목사 사모로 구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 김집사님의 사모에 대한 인상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리라. 우리 모두 가쓰임 받기 위해 준비해야겠지만 특히 하나님의 종과 사모는 준비돼야 함을 느끼게 한다.

#### 2001년 태신자명단

전도학교 박경건 김승현 김길호 유종창 허진호 박순옥 이동혁 윤정열 박상근 신혜원 김경호 박수형 윤진열 박미숙 서미자 김정숙 박복순 유근열 전찬옥 윤순악 이종태 송병한 김형찬 오문현 박재호 이명화 김덕원 이원석 구진희 민혜진 김규배 조재현 김문자 최한나 최광현 정혜숙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입당감사와 축제위원회 10대 행사를 위하여
2. 새로 등록하는 가정 정착할 수 있도록
3. 흥해작전 12가지 기도제목 성취되도록

### -제19학기 목회자 세미나 식당봉사를 마치며- 시부모님을 대접하듯

이해순 권사(3교구)

지난 4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10회에 걸쳐 목회자 신학세미나에 참석하신 목사님들의 점심식사 대접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께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논현동과 반포동 교회에서 김밥을 준비하셨던 지금의 제1권사회 선배 권사님들께서 새벽잠을 설치시고 천막부엌에서 하셨던 눈물겨운 봉사는 하늘나라 상급으로 다 예비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대치동의 새 예배당에 와서 제2권사회 주관으로 8층 만나홀에서 시원하게 대접할 수 있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목사님들을 맛있게 대접할 수 있을까? 고심하며 마치 멀리서 오신 시부모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온 정성을 다해 한 주전에 메뉴를 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권사님들의 손길은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금요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장 보는 일에 시간을 떼어놓고 교회에 모여 출발하는 그 시간들은 알 수 없는 기쁨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삼 사백명 분의 시장을 보려면 차에 가득히 싣고도 모자라 무릎에 엎고는 짐 속에 파묻혀 졸다고 아우성도 쳤지만 웃음꽃이 피는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부엌은 땀으로 범벅이었지만 사랑의 열기로 국이 끓고 감사의 마음으로 대접하는 그 자리를 주님이 이미 받으시고 큰복으로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또한 식사 전에 당회장 목사님이 만나홀 주방에 오셔서 기도해주실 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은혜 중에 10번의 준비가 다 끝나고 오는 20학기를 위해 힘을 충전하며 준비기간을 갖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하는 이사가 선지자의 심정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회자 신학세미나에 여러모로 찬조해 주신 여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는 9월 3일 제20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때 만나홀에서 모두 다시 만나요.

#### 김치 세미나에 도움 주신 가정

김병숙 강승준 김금준 장하빈 이복규 장슬빈 김정애 스테반회 유명숙 문순분

#### 정정

지난 주 인터넷 상담 E-Mail을 정정합니다.

법률: sanghlim@chollian.net

병무: bsl71@i5425.com

간사: flowerob@hanmail.net

#### 동정

- 이임희 집사 백영희 권사, 이성근 집사 김영림 집사 (11교구) - 34인승 버스 기증
- 박종권 집사, 윤종희 성도 (3교구) - 김치세미나 서울 탐방 협찬
- 박창수 서현진 성도 10교구로 이사
- 김동훈 집사 이영주 집사 12교구로 이사
- 정덕균 집사 김미선 집사 (11교구) 득녀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백우기 집사 허현숙 집사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약도 : 한남대교 성수대교 영등대교



대치역 2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 거리